



인내의 결실을 맺고 있는 중국

1. 주도주가 바뀐 대만 증시

- 6월 대만 산업재 섹터는 +56.8% 급등. 대만 증시 내 수익률 1~10위 기업 모두 해운/운송 관련 기업
- 지수 비중이 72.9%에 달하는 IT섹터는 오히려 -0.5% 하락. TSMC 주가 역시 약보합권(-0.3%)
- IT의 상대적 부진, 산업재의 강세는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됐던 내용

2. 물가 급등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미국

- 미국의 물가 상승 부담은 지속되는 양상. 6월 ISM 제조업 지수 하위 항목 중 물가 지수는 92.1pt로 추가 급등. 1979년 7월 이후 최고 수준
-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 지속. 5월 NAR 주택가격지수는 전년대비 +23.6% 상승한 것으로 집계. 2000년 통계작성 후 최고 수준. 이에 연준은 MBS 매입 규모를 우선 축소하는 '2단계 테이퍼링' 방안을 논의 중

3.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

- 중국은 오히려 물가 부담이 낮아지는 양상. 6월 투하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전월대비 대폭 하락. 부동산 가격 상승률도 평년대비 낮은 수준
- 보수적인 통화정책, 원자재 안정 정책이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하반기 대부분의 국가가 연준을 의식한 긴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낮은 물가는 안정적 정책운용의 기반이 될 전망

1. 주도주가 바뀐 대만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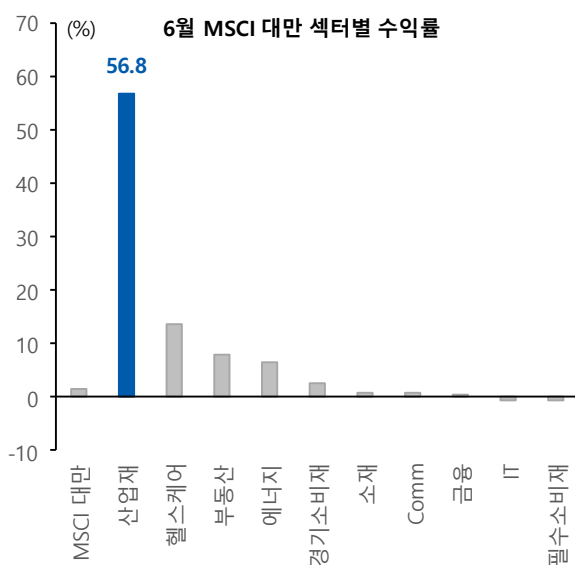
6월 MSCI 전세계 지수는 +1.2% 상승해 5개월 연속 강세 기조를 유지했다. 상반기로 보면 +11.4%, 권역별로는 선진국이 +12.2%, 신흥국이 +6.5%를 기록했다. 주요국으로 보면 선진국에서는 프랑스(+14.8%), 신흥국에서는 대만(+17.3%)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6월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은 대만 증시다. MSCI 기준 +1.3% 상승(가권지수는 +4.0%)했는데, 신흥국 지수가 -0.1% 하락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대만 증시의 강세는 IT섹터와 대표기업인 TSMC의 강세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MSCI 기준 대만 증시에서 IT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72.9%에 달한다(TSMC는 44.6% 비중). 그러나 6월 대만 IT섹터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0.5%)을 기록했고, TSMC 역시 지수를 하회하는 움직임(-0.3%)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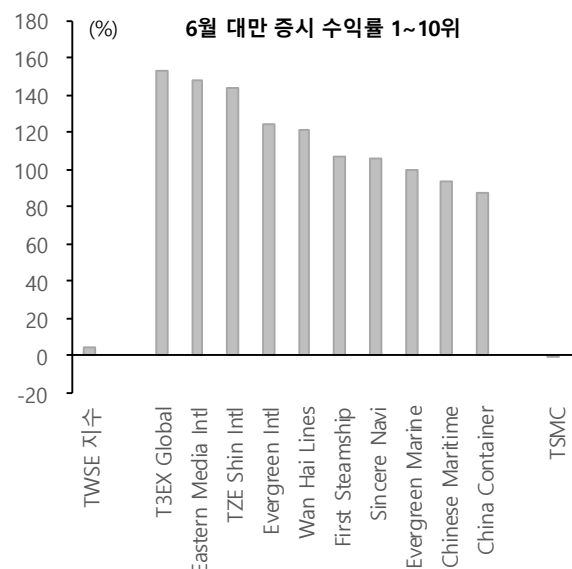
6월 대만 증시 상승을 이끈 것은 산업재 섹터였다. 6월 한달간 수익률이 +56.8%에 달했는데, 6월 대만 증시에서 수익률 1~10위를 달성한 기업 모두 해운/운송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다. IT의 상대적 부진, 산업재의 아웃퍼폼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되는 내용이다.

[차트1] 6월 대만 증시의 강세는 IT가 아닌 산업재 섹터가 주도. 6월에만 56.8% 상승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6월 대만 증시의 수익률 상위 1~10위 기업은 모두 해운/운송 관련 기업. TSMC는 하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물가 급등이 지속 확인되고 있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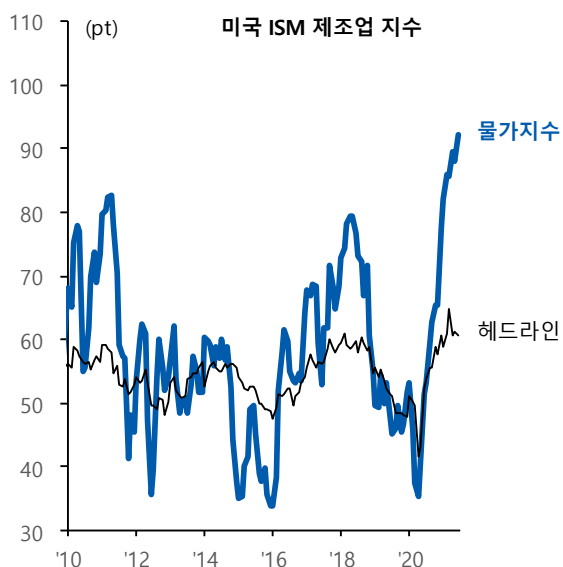
지난 주 확인된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는 전월 61.2pt에서 60.6pt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단기간 급등했던 것을 고려하면, 지표의 값이 둔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우려되는 부분은 물가 상승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ISM 제조업 지수의 하위 항목 중 물가 지수는 5월 88.0pt에서 6월 92.1pt로 추가 급등했다. 이는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작년 평균값은 54pt, 작년 6월은 51.3pt 수준이었다.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직면한 원가 부담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 생각된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도 지속 확인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미국의 4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20개 도시)는 전년대비 +14.9% 상승, 5월 부동산협회 주택가격지수는 +23.6%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0년 통계작성 후 최고 수준이다.

원자재, 부동산 등 전방위적 물가 상승이 확인되면서 연준 내부에서는 MBS 매입 규모를 우선 축소하는 '2단계 테이퍼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차트3] 6월 ISM 제조업 PMI 물가 지수는 79년 오일쇼크 이후 최고치인 92.1pt로 상승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미국 내 부동산 가격도 급등세 지속. 연준은 MBS 매입 규모를 우선 축소 하는 방안을 논의 중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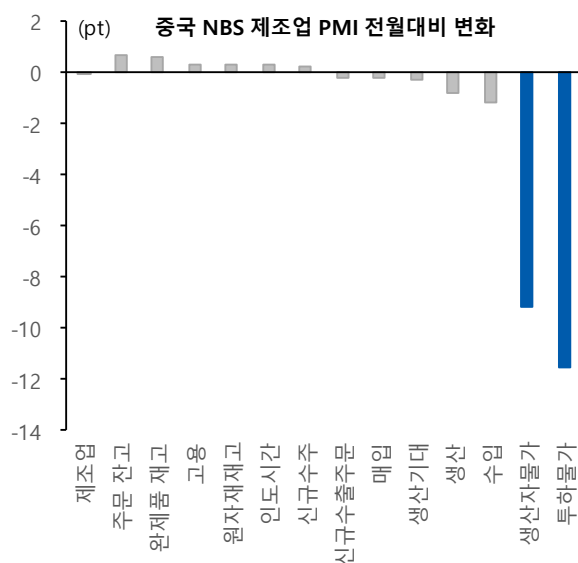
주요 신흥국 중 브라질과 러시아가 이미 올해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최근에는 멕시코, 헝가리, 체코도 물가 상승을 경계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지난 22일 헝가리는 약 10년만에 기준금리를 0.6%에서 0.9%로 인상, 24일에는 체코와 멕시코가 각각 +0.25bp를 인상했다.

한편 중국의 경우 오히려 물가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함께 확인된 중국의 NBS 제조업 지수에서는 투하물가와 생산자물가 모두 전월대비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투하물가의 경우 5월 72.8pt에서 6월 61.2pt, 생산자물가는 60.6pt에서 51.4pt로 하락했다. 보수적인 통화정책 운용, 물가 급등의 원인이 된 원자재 가격 안정 정책(철강 생산량 제한 등)이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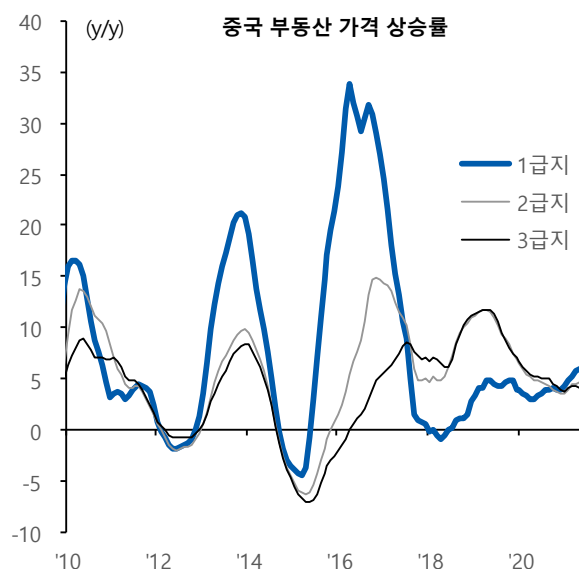
중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 역시 오히려 평년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반기 대부분의 국가가 연준을 의식한 긴축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낮은 물가는 안정적인 정책운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차트5] 6월 중국 NBS 제조업 PMI에서 확인된 물가 지수는 전월대비 큰 폭 하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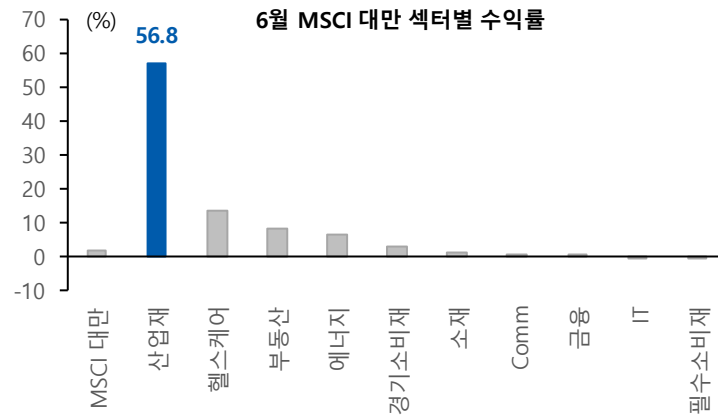
[차트6] 중국은 부동산 가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중. 작년말 부동산 규제, 연초 유동성 회수 조치 등의 성과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

6월 대만 증시의 강세는 IT가 아닌 산업재 섹터가 주도. 6월에만 56.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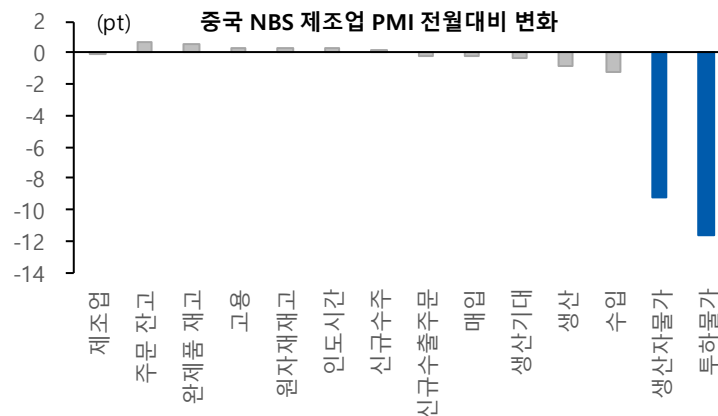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6월 ISM 제조업 PMI 물가 지수는 79년 오일쇼크 이후 최고치인 92.1pt로 상승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6월 중국 NBS 제조업 PMI에서 확인된 물가 지수는 전월대비 큰 폭 하락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